

종교 성지순례 '다이로운 익산여행 시즌2'

시, 4대종교 성지 방문·문화 체험... 올해 승마 체험·식품클러스터 견학 등 확대 진행

익산시는 치유와 체험을 결합한 종교문화순례 다이로운 익산여행 시즌2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종교문화 여행 공모사업에 선정돼 9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800여명이 참여해 체험형 지역관광 상품으로 급부상했다.

시는 올해 국비예산을 확보해 4대 종교 성지순례에 체험형 관광을 연계해 봄, 가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다이로운 익산여행 시즌2는 지난해보다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종교순례 여행에 승마체험과 익산시 대표축제를 연계하여 진행하며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점기업 견학 등 종교와 문화 체육, 산업관광 콜라보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여행 활성화에 발맞춰 지역과 타지역 여행사들과 협력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및 종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행희망자에게 홍보모집해 방문객들을 늘려갈 계획이다.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대한민국 대표 4대종교의 성지를 방문하고 종교 문화 체험을 통해 '벼리고 비우고 채우는 힐링' 하는 여행으로 지역대표 관광지를 돌아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익산시는 치유와 체험을 결합한 종교문화순례 다이로운 익산여행 시즌2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다이로운 익산여행 모습)

숙박 및 식사를 함께 제공받는 흔치 않은 관광 상품임을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좋은 성과를 이루었던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익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사

람들이 참가하는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올해 4월~6월과 9월~11월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모집 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선화사 묘법연화경' 문화재 됐다

조선 초기 불교판본·서지학적 중요 자료 평가... 도 유형문화재 지정

남원시 인월면 선화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이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304호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묘법연화경'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담고 있는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으로, 줄여서 '법화경'이라고도 한다.

특히 본 책은 전라도 관할사를 역임한 성달생과 성계 형제가 서사한 판서본을 바탕으로 정통(正統) 원년(1436년)에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중간한 판본으로 조선 초기 불교판본 및 서지학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에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묘법연화경'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으로 고려본을 포함하여 조선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간행되어 왔다.

남원 선화사 소장본 묘법연화경의 권수제와 권차는 '妙法蓮華經卷第六(묘법연화경 권제육)'으로 권6과 권7이 함께 묶여 있는 목판본 2권 1책으로 110장이며 청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다.



남원 선화사 묘법연화경 권수제면

시 관계자는 "선화사 묘법연화경의 유형문화재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보존 가치가 뛰어난 신규 문화유산 발굴작업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기존 지정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등 문화재 가치 재조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의 대표적인 동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군민 릴레이 홍보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범군민 릴레이 홍보 캠페인 시작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의 대표적인 동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군민 릴레이 홍보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릴레이 홍보 캠페인은 '고창 방문의 해'를 주제로 고창군을 홍보하거나 한 해의 답을 담은 시민의 문구를 피켓에 작성해 SNS에 인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캠페인은 고창 방문의 해 추진단 직원들 시작으로 읍면과 기관·사회단체, 나아가 너도 나도 동참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되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분위기가 고조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고창방문의해 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고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매력 전달' 홍보 서포터즈 출범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군청 2층 상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서포터즈의 역할·운영방향 등을 설명했다.

서포터즈는 올해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각종 이벤트, 행사·축제와 관련한 SNS 홍보와 함께 현장 홍보활동 등 고창군 홍보단으로서 전국민과 고창군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 참여한 한 서포터즈는 "모두가 고창군 홍보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고창의 숨은 매력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열리는 축제, 문화행사, 이벤트 등을 참신한 아이디어와 풍부한 감성으로 참여여 고창의 아름다움을 전국 곳곳에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총 32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인문학·클래식의 만남' 완주서 펼쳐진다

14일 '샌드아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예술감상 여행 피터와 늑대' 공연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샌드아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예술감상 여행 피터와 늑대' 공연이 펼쳐진다.

완주군은 완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4일 오후 4시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인문학과 클래식을 접목한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샌드아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예술감상 여행 피터와 늑대'는 지리적으로 문화시설 접근이 취약한 지역주민을 위해 2022문화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연주곡으로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La Forza del destino Overture와 클래식 뮤지컬 음악 동화 Peter and The Wolf, op.67을 동화구연 나레이션 김서연의 해설과 함께 연주하며 마지막 곡으로 위풍당당 행진곡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No.1로 진행된다.

조두호 지휘자가 이끄는 완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전문예술 연주자 45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멋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완주문화예술회관, 완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며 무료 공연이다. 공연 예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임동빈 문화역사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공연 관람 시 이용자 방역수칙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